

Session11 무용·연기(예술)의 질적 연구

무용에서 실기기반연구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¹⁾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무용연구에서 실기기반연구(Practice Based Research, 이하 PBR)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예술분야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실기'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기를 연구한다는 것은 예술의 질을 성장시키고 또한 지식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예술분야의 연구가 실기의 현장을 파악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때 실기와 연구는 통섭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다수의 예술가들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교수들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예술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술 현장에도 예술적이고 학문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II. 선행연구 검토

유럽 대학에서는 예술전공 교수들의 창작 작품이 논문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이하 AHRC)보고서에 의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학에서는 예술계의 학과라도 연구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예술(실기)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술실기에 종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실기를 배제하고 이와 분리된 학문만을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에서 연구만 강조하고 실기를 확대하는 분위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예술대학 교수들은 실기기반연구(Practice based Research, 이하 PBR)를 위한 토대를 본격적으로 구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AHRC의 지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힘입어서 영국의 예술대학에서 실기기반연구 논문을 박사학위(Ph.D)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영국에서 PBR이 연구되고 활성화하게 된 맥락은 1990년대 초반 후기구조주의와 비평이론, 페미니즘, 공연연구의 발달로 예술이 분석되고 이론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문헌연구로서 그 특성상 탐색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를 실행했다. 자료수집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PBR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류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그 내용을 탐구하여 PBR에서 등장배경과 그 개념을 도출해 내었다. 무용에서 '연구'의 개념은 문헌 자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PBR의 방법론으로 준비, 연습, 공연 그리고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분석·해석할 수 있는지

1)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kscho@ewha.ac.kr)

를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무용 현장과 춤의 실재를 연구하려는 활동으로서 PBR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실기를 연구하는 것은 연구방법론이나 연구결과물에 실기적인 요소가 결합한 학술연구의 한 방법론이다. 이는 몸과 마음, 감성과 이성의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관점이 해체되면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는 실기와 이론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규명하지 않는다. 대신 실기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서 그 내용과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기를 연구하는 이러한 연구법은 다양한 예술분야에 대해서 여러 학문분야를 통섭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기연구법으로 확대되고 있다. 예술과 인문학의 경우에도 새로이 출현한 이러한 연구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무용에서 PBR의 단계

	실기 실행		연구 실행	
1단계	계획, 구상	‘명제적 읽’	연구제안서 쓰기: 작업의 필요성, 목적, 주제와 방법 결정.	
2단계	창작, 연습	‘경험적 읽’	춤체험을 통한 ‘체험자료’ 확보	‘설명적 읽’
3단계	공연, 감상	‘경험적 읽’	공연을 통한 자료와 관객조사를 통한 자료 확보	‘설명적 읽’
4단계	분석, 평가	‘명제적 읽’	전 과정의 분석과 평가. 논문쓰기	

V. 나가며

본 연구는 예술가이면서 연구를 하는 자들을 위해 실기기반연구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 PBR은 실기와 그 실기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되는 독창적인 연구방법이다.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기여해야 하고, 실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실기기반연구법이 보다 예술현장을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한국의 예술대학에서 예술가인 교수의 연구 활동은 일반계 교수들의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가. 본 연구가 한국 예술계 대학의 교수들이 실기기반연구로 자신들의 예술작품을 연구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Biggs, M., and D. Buchler(2008). Eight criteria for practice-based research in the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Art, Design & Communication in Higher Education*, 7(1), 5-18.
- Candlin, F.(2001). Practice-based Doctorates and Questions of Academic Legitimacy.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19(1), 96-111.
- Eddy, M.(2009). A brief history of somatics practice and danc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ield of Somatic Educ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ance. *Journal of Dance and Somatics*1(1). 5-20.

체험기반 무용연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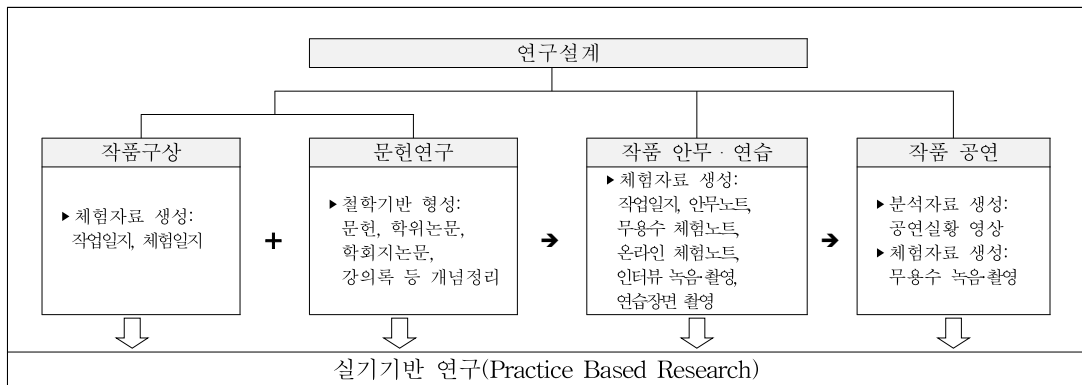
한혜주(이화여자대학교)3)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연구자의 창작 무용작품 「순례」에 참여한 본 연구자와 참여 무용수가 제일자적 관점(first-person perspective)에서 기록한 체험자료(somatic data)와 관찰내용을 분석하여 무용수가 몸의 인격성을 회복하는 것과 고유한 움직임에 계발하여 독창적 춤을 형성하는 것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기기반연구법을 병행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개념인 몸(soma), 몸적학습(somatic learning), 몸의 인격성(Personality of soma)에 대하여 문헌, 학위논문, 학회지 논문 및 강의록 등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실기기반연구(Practice Based Research)법으로 작품구상과 안무 및 연습 그리고 공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그림1] 참조)



[그림 1] 연구절차

III. 무용과 실기기반연구 사례

작품의 구상단계, 안무 및 연습과정, 공연까지의 기간(2012년 3월 18일~2014년 1월 13일) 동안 몸적학습(somatic learning)을 활용한 무용수의 체험을 분석하였다. 무용수가 직접 감지한 몸의 현상들을 제일자적 관점의 글로 기록하였고, 연습과정에서 안무가와 무용수 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1> 참조)

2) 이 논문은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무용작품 「순례」 연구: 무용수의 ‘몸의 인격성’을 찾아」 (이화여자대학교, 2015)를 재구성한 것임.

3) 이화여자대학교 공연문화연구센터 연구교수(hanhyeajoo@ewha.ac.kr)

<표 1> 참여무용수의 체험자료 생성과정

무용수	참여기간	성별	나이	경력	→	체험자료 생성방식
(가)	2014.04.04~2015.01.13	여	26세	10년		작업일지 기록, 안무노트 기록, 체험자료 기록, 온라인 체험노트 업로드, 무용수 인터뷰 녹음·촬영, 연습·공연 장면 촬영
(나)	2014.05.30~2015.01.13	여	27세	15년		
(다)	2014.04.04~2015.01.13	여	31세	20년		
(라)	2012.03.18~2015.01.13	여	32세	25년		
(마)	2014.04.04~2015.01.13	여	35세	25년		
(바)	2014.03.26~2015.01.13	여	38세	20년		

IV. 연구결과

1. 안무가와 무용수간의 수평관계로 전환

체험자료 생성을 위해 모든 연습과정에서 몸-체험(경험의 세계)을 언어(인식의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무가와 무용수간의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소통형 토론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무용수는 공동 창작자로서 작품의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2. 제 2의 창작자로서 무용수의 역할 확장

이로써 무용수는 ‘살아있는 역사와 기억’이 담긴 자신의 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움직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무용수는 안무가가 제시하는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려는 습성에서 벗어나 독창적 표현력을 발휘하여 제2의 창작자로서 안무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3. 몸 감각을 활용한 주체적 움직임 탐구방식 습득

이를 통해 무용수는 몸 감각을 활용한 주체적 움직임 탐구방식을 터득하면서 몸에 대한 재인식, 자각, 일치, 개방의 단계를 거쳤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몸에 내재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춤이 신체 단련의 목적을 초월하여 몸의 고유한 인격성을 발견하는 수련방법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V. 나가며

본 논문이 무용수가 스스로 고유한 움직임 개발하고 작품의 의미를 형성해가는 주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부수적으로는 창작작업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조기숙(2009). 주체적인 몸 살아있는 몸 -몸학(Somatics)에 기반 한 안무방식에 대한 탐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61호, 대한무용학회. pp.260.
- _____(2013). 무용에서 ‘실기에 기반을 둔 연구’에 관한 고찰 -개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지』 제31권, 한국무용기록학회. pp.229-255.
- Hanna, T.(1979). *The Body of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 Paul-II, J.(2006). *Man and Woman He Created Them: A Theology Of The Body*. Pauline Books & Media.
- (이하 생략)

P. Pavis.의 연극분석 방법론

홍세희(상명대학교)⁴⁾

I. 들어가며

<연극학사전>의 저자로 잘 알려진 연극학자 빠트리스 파비스(Parice Pavis, 1949-)는 연극기호학, 연출, 관객, 문화상호주의, 전통실험, 매스미디어 분야 등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0여년에 걸쳐 크게 변모하고 있는 ‘연극’이란 대상에 대한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했다. 연극은 후기구조주의의 영향으로 문학적 개념이 아닌 공연 접근성 개념으로 변모하였고, 현상학적 개념의 개입으로 육체적 현존성과 공연현장이 가진 생명력 등 현재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영은, 2013) 파비스(2012)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의 연극을 분석하고 연구하기에는 기존의 연극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그는 연극을 문화적 퍼포먼스의 범주에 넣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퍼포먼스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이론은 다양하게 변모하는 연극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가 새로운 연극(공연)의 연구를 위해서 제시한 연극분석 방법론을 소개함으로써 현 시대의 연극을 새롭게 인지하고 탐구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고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공연) 분석과 관련한 파비스의 논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특히 그가 탐구한 연극(공연)분석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문헌으로 「연극평론」에 2002년-2003년까지 연재된 한국종합예술학교 연극원의 최준호 교수가 번역한 ‘공연분석-연극, 무용, 마임, 극무용, 영화’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이 문헌을 바탕으로 그가 제안한 ‘퍼포먼스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로운 방법론을 위한 분석의 도구와 분석의 요소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II. 결론

4) 상명대학교 영상영화학과 강사(forestsehee@gmail.com)

파트리스 파비스(P. Pavis)의 연극분석방법론에서 제시한 새로운 탐구는 현 시대의 연극이 어떠한 맥락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게 하고 그 흐름에 맞게 연구 관점을 다각도로 확장하고 학제적으로 갖아야 함을 인식하게 해주었다. 그의 '퍼포먼스 이론'은 학제간 융합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에 필요한 분석의 도구들과 요소들을 설명한다.

분석의 도구들은 구술적인 서술, 메모하기, 설문과 프로그램, 연출노트, 보도자료, 홍보용 파라텍스트, 사진, 비디오, 컴퓨터와 CD와 같이 우리가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었지만 그는 여기에 분석된 내용을 서술하는데 유용한 연극고고학 이론의 필요성과 살아있는 현장을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배우의 공연체험기록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극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 매체와 연결된 배우와 관객의 몸체험을 중요한 분석의 도구로 제안하고 있다.

무대의 구성요소의 분석은 첫째, 배우의 작업과 연기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배우의 분석에 있어 연극적인 측면과 영화적인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연기의 분석에 있어서는 음성, 음악, 리듬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밖의 무용, 마임 등의 극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들이 있다. 넷째, 배우들의 극 행동과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분석이다. 다섯째, 상연에서의 '물질적 요소'에 대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감각에 대한 분석이 있다.

그가 이 방법론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바로 배우와 관객의 몸이었다. 다른 요소들을 수용하고 현장성과 수행성을 지닌 퍼포먼스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연극에서 배우와 관객은 작품(공연)의 완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았다.

IV. 나가며

파비스의 연극분석법을 살펴보면 살아있는 연극공연의 생명력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 있어 실천(연기)하는 몸과 관객의 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파비스의 이러한 탐구와 연구방법론의 제안은 실기(연기예술)가 연구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은(2013). 파비스가 본 한국 전통 수용 현대극과 그의 연극분석방법론 고찰. 『세계문화 비교연구』, 45, 25-50.

파트리스 파비스(2012). 공연분석론의 현재, 연극학인가 퍼포먼스 이론인가?. 『연극평론』 통권 66호, 130-142.

_____저 최준호역(2002-2003). 연재_공연분석-연극, 무용, 마임, 극무용, 영화. 『연극평론』 24호, 198-223.

(이하 생략)

실기기반연구 : 연기의 사례

- 체험의 몸, 객관의 몸, 상상의 몸

송갑석(청주대학교)⁵⁾

I. 들어가며

본 연구는 27회 신춘문에 단막극전 <가난 포르노>(2017. 3. 23 ~ 4. 8/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작품을 통한 몸적 체험에 대한 연구이다. 연습과정에서부터 공연의 전 과정에 걸쳐 연기자에 의해 체험된 몸이 어떻게 객관화되고 상상의 몸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몸적 체험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먼저 빠뜨리스 빠비스의 공연분석방법론과 함께 연기연구에서의 실기기반연구 방법론을 선행 연구하였다. 연습과정과 공연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기기반연구의 개념과 과정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질적인 면에서 계획과 구상 연습과 공연, 분석과 평가 등 과정의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선행 연구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7회 신춘문에 단막극전의 출품작 <가난 포르노>의 공연작품을 분석하면서 80대 노파역을 맡은 남성 연기자의 연습과정과 공연을 중점적으로 실기기반연구를 시도하였다.

노파역의 남성 연기자는 연기경력 30년이 넘는 50대의 중견 연기자이다. 연습기간은 2018년 2월 6일부터 3월22일 까지 총 41일이며, 공연기간은 2018년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5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연습 시에는 연기자의 제1자적 관점의 개인적 체험을 비롯하여 제2자적 관점의 상대 연기자와의 교감과 제3자적 시각에서 연출가의 관찰이 다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기자의 몸적 체험을 객관화하여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공연 시에는 제3자적 관점의 관객과의 대화방식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이 기간 동안 실기기반연구로써 연기자의 몸(목소리, 덕션, 신체표현의 리듬의 방법)과 함께 시간, 공간, 행동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와 동시에 공연분석방법론을 적용하였다.

5) 청주대학교 연극·영화음악학부 조교수(theatresong@cju.ac.kr)

IV. 연구결과

포스트드라마시대의 공연에서는 작품 창작의 주체는 작가의 텍스트가 아니라 연기자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연기자의 몸에 의해 텍스트는 해석, 해체되고 재구성되어 관객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연기자의 살아 움직이는 몸은 작품창작의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전이의 과정을 거쳐 관객과 만나게 된다.

체험의 몸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1자적 관점에서 연기자의 몸적 체험과 두 번째, 제2자적 관점에서 상대 연기자와 연출가의 몸적 체험 그리고 세 번째, 제3자적 관점에서 관객의 몸적 체험이 있다. 이처럼 다른 종류의 체험의 몸들은 서로 교감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 차원의 객관의 몸으로 전이된다. 또한 이와 같은 전이 과정에서 연기자의 체험된 몸은 연출과 함께 작품창작의 주체로서 수평적 위치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된다.

객관의 몸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제2자적 관점의 상대 연기자의 몸적 체험이고 두 번째, 연습 과정에서 연기자의 몸적 체험에 끊임없이 교류하고 대화하는 연출가의 제2자적 관점의 몸적 체험이다. 이처럼 연기자의 제1자적 관점으로 체험된 몸에 제2자적 관점의 체험들이 서로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며 결국 연기자의 몸은 체험의 몸과 동시에 객관의 몸이 된다.

상상의 몸은 연기자와 연출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몸이다. 공연과정에서 연기자의 체험의 몸과 객관의 몸은 관객의 몸적 체험을 통해 상상의 몸으로 전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결국 연기자의 몸은 체험의 몸, 객관의 몸, 상상의 몸이 함께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다. 잘 어우러졌던 상상의 몸은 극장을 빠져나온 관객들에게 몸적 체험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된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연기자의 제1자적 관점의 몸적 체험이 상대 연기자와 연출가에 의해 제2자적 관점으로 어떻게 객관화되고 관객에 의해 제3자적 관점으로 어떻게 상상의 몸으로 되는지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연기자의 체험적 몸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상의 몸으로 전이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체험적 몸의 전이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다음 연구에서는 상상의 몸으로 가기 위한 연출가의 연출방법론을 분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조기숙(2013). 무용에서 '실기에 기반을 둔 연구'에 관한 고찰 - 개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회』, 31, 229-255.
- 조정희, 조기숙(2012). '춤추는 몸'의 인식에 관한 탐구 - 무용작품의 체험분석을 통하여. 『무용역사기록학』, 24, 149-167.
- 빠트리스 빠비스, 최준호역(2004). 공연분석 제2부 3장-공간, 시간, 행동. 『연극평론』, 32, 244-264.
- _____, 최준호, 한덕화역(2004). 공연분석 제2부 4장 - 공연의 다른 물질적 요소. 『연극평론』, 35, 203-222.

(이하 생략)